

만개한 옥정호 벚꽃길 '씽씽'

임실군, '2024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 대성황

임실군 옥정호 벚꽃길을 주 무대로 한 '2024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가 대성공을 거뒀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처음으로 벚꽃과 자전거의 환상적인 어울림을 선사한 '2024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를 개최, 환상 코스에 더해 안전사고 없는 최고의 자전거 대회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옥정호 벚꽃축제 시즌'로 열린 이번 대회는 벚꽃이 만개한 옥정호 국사

봉 드라이브길과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최상의 코스라는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회장 유정환)이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자전거 동호인 1,100여 명이 참가한 최상위권 자전거 대회다. 이번 대회는 특히 경기가 열린 날 점심부터 임실을 소재 임실시장 일대가 자전거를 실은 자동차 및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주요 음식점과

카페에도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했다는 평이다.

군은 이번 자전거 대회의 안전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과 임실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사전에 대회 주행코스를 면밀히 점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

또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교통순찰차, 사이카 4대, 기동대 50명을 주요 교차로 및 교통 취약지에 배치해 차량과 자전거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 유도 요원 40명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경기 구간 내 포트를, 잔석 등을 정비하고, 도로 환경 정비에 힘썼다. 읍면 이장회보 등을 통해 사전 대회 홍보에 주력한 결과, 큰 사고 없이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대회는 그란폰도(124km)와 메디오폰도(72km)방식으로 치러졌다. 오전 8시에 경기장을 출발해 임실읍, 성수면, 덕치면, 운안면 등 관내·외 11개 읍면을 경유하고 임실종합경기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그란폰도 124km는 메디오폰도 코스의 덕치 회문삼거리에서 정읍 산내면사무소, 운암 카페거리와 봉어섬 출렁다리, 운암 선거를 거쳐 임실종합경기장에 도착하는 코스로 옥정호 벚꽃길을 달리는 절경을 선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옥정호 벚꽃길을 주 무대로 한 '2024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가 대성공을 거뒀다.

임실, 지역선도 예비창업자 모집

오는 29일까지 신청

임실군이 참신한 지역특화 콘텐츠 및 창업 아이템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갈 지역내 예비 창업자를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

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공모 선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 기관으로 참여한다.

지역선도 창업지원사업은 모집된 참여자에게 창업교육 60시간, 그룹형 멘토링 30시간, 1:1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진행한다. 교육 시간 80% 이상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7명의 창업 대상자를 최종 선발, 최대 1,2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인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063-280-5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단 운영

남원시는 지역 내 건강한 소나무를 보존하고 산림환경 조성 및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확산되고 있으며, 남원지역에도 매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됨에 따라 지난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피해목 벌채·훈증 및 예방 나무 주사 작업을 진행했다.

재선충병에 감염되면 100% 고사하기 때문에 의심목 예찰을 통한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남원시는 관내 산림 예찰을 위해 예찰단 4명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1,652건을 전북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 의뢰하여, 23건의 감염목 발견을 통해 의심목 예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료 채취목은 QR코드 테이프가 붙어 있어 다른 나무와 쉽게 구분이 가능하며, 예찰방제단의 활동으로 남원



시는 타 시군에 비해 경미한 수준의 발생량을 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발효관광재단이 오는 13일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2024 순창 장담그는날'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23 순창 장담그는 날'.

발효문화 전세계에 알리다

순창, 13일 '순창 장담그는날' 개최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발효관광재단이 장담그기 문화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오는 13일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2024 순창 장담그는날'을 개최한다.

'2024 순창 장담그는날' 행사는 발효의 고장인 순창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인 장담그기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 나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가 열리는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은 1997년 순창의 장류 제조 명인·기능인들을 모아 조성된 마을로 지금도 성황리에 장류를 생산,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마을 중앙 도로에는 조선 시대 캐리터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판매 부스, 기관 홍보 부스,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 등 총 20개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난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담그기 시연, △어린이공연(솜사탕, 마술, 풍선, 버블), △메주만들기 퍼포먼스, △연극, △장내려온다! 퍼레이드, △초청공연, △풍물대동구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한, 이번 행사의 핵심인 도시민 장독대 분양은 사전 신청한 참가자들이 장류 제조 명인 및 기능인들과 함께 장을 직접 담그고, 이후 잘 숙성시켜 10월 중으로 각 가정으로 배송되며, 행사 당일 현장에서는 순창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특별 할인 체험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행사 당일 일찍 도착하는 관광객을 위한 오픈런 이벤트, 한복 착용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증정 이벤트, 순창 발효 테마파크 무료 입장, SNS 인증 이벤트, 설문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당일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은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지정 판매점에서 모든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청년 희망퇴직 창업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창업가를 꿈꾸는 19세부터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024년 남원 청년희망퇴직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작한 이 사업은 예비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역량 강화 교육부터 전문가 1:1 컨설팅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그리고 시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1,500만원을 지원 하는 창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오는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은 창업교육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1단계 사업이었던 개발 및 준비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을 하고, 2단계 1단계 우수기업에게는 사업 고도

화 지원금으로 추가 1천5백만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의 진정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단계 풀타임과 아이디어 승부를 던지는 예비창업가 8명과 지난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 단계에 3개사까지 총 11개 예비창업기업을 육성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청년마루 홈페이지(www.namwon2030.or.kr)와 전화(063-6632-203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노안동 일원에 청년희망퇴직사업과 연계한 예비창업가 3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청년 공유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농기센터, 5월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생활과학관에서는 오는 5월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우리 쌀을 활용한 홈 파티요리, 간편식, 영양간식 등 건강 식단 실습을 통해 남원 지역 내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급식관계자와 농업인 리더 육성을 위해 진행한다. 교육은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총 4회)로 A반과 B반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생 모집은 8일부터 19일까지 남원시청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 대상자는 남원시 관내의 영양(교)사, 급식관계자, 조리·영양·식품가공 종사자 등의 전문인력으로, 단체급식에서의 쌀소비 촉진과 쌀 중심의 우리 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적용 역량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 시간 및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식품산업 담당자(063-620-8027)에게 문의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2024년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순창군이 관내 330여 농가를 대상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비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농가 선정을 완료했으며, 즉시 비닐을 공급하여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작물 수확 후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제품으로,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영농 폐기물 처리비용과 노동력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농가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군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연간 60여 농가, 20ha 면적에 공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